

“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

■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교회는 일제시 칼날같이 무서운 핍박도 이겼다. 공산주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다. 그 위기의 핵심은 죄다. 그 죄가 일만약의 뿌리인 돈과 아담을 넘어뜨린 공명심이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예사롭게 생각하고 위기 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기총이 왜 필요한가 차라리 해체하자는 이들의 소리까지 들려오지만 그들의 본래 목적은 해체가 아닐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까지 들려지는지 정말 눈물이 난다. 한기총은 친목단체도 사업단체도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봉사단체다. 개교단이 못하는 것을 교단의 공통분모를 찾아 섬기기 위해 조직된 연합단체다. 실행위원도 섬김위원이지 대표를 뽑는 위원회가 아니다. 현재 60여 개가 넘는 교단 협의체로 분과위가 30개가 넘는다. 사이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알고 보면 모두가 물욕과 공명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모든 것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교회도 커지다 보니 허세를 부리기 위한 가짜박사, 세속적으로 향락을 취한 위선적 지도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욕을 못 이겨 금권선거 등을 자행하면서 돈을 썼더니 당선되더라는 해괴한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그 돈은 누구의 돈이며 어디에 썼나를 묻는 진실게임이라도 하는 날엔 한국교회는 박살이 날 판이다. 속히 회개하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 이대로 밀고 나가면 죽는 길 밖에 없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는 없고 면류관만 쓰겠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불신사회조차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와 타락의 소굴로 바라보았던 중세기보다 덜하지 않은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전 회개해야 한다.

몇 천명을 거느리는 추기경 같은 목사들과 수십만을 대표한다는 교황 같은 위세를 부리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타락케 하고 있지 않은가. 불신사회에 덕을 세우기는커녕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오늘의 한국교회를 누가 구해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재생하려면 홍역을 한번 치러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셨다.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다. 악마와는 아합하거나 타협치 말고 대적해야겠지만 주안에서 형제된 성도와는 싸우는 것을 악마는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유능한 목사라도 싸우는 선봉에서 영웅적 투사로 선 사람들은 모두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일을 하는 영광스런 직분을 갖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쟁을 하는가. 공산당도 이겼는데 돈 앞에 무릎꿇은 한국교회가 안타깝다. 가난하면 먹이면 되지 만 썩은 것은 안 된다. 현금을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니 오용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돈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얼마전 어느 단체에서 총회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어느 교회당에서 하자 했더니 총회장님을 어떻게 교회로 모시니까 호텔로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개도 웃을 발언이 나온 적도 있다. 목적 변경은 범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성도들의 헌금을 연합기관의 장이 되기 위한 선거 비용으로 썼다면 8계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영성도 이성도 다 떠났다면 지나친 진단일까. 하나님과 성도를 무시한 지도자의 종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 아니면 교회의 책벌을 받아 영원히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까지 가게 될까 두렵다. 상대방의 눈을 뽑기 위해 내 눈을 뽑겠다는 식은 이성도 지성도 영성도 마비된 자의 행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영성이 없는 함량이 미달된 자가 지도자라고 우쭐대는 모습은 겸손히 기도와 자기회생이 필요한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다 썩은 것은 아니다. 회생과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종의 모습으로 목회 잘하시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한기총을 해체하면 안 된다. 나라가 부패했다고 해체하면 그 백성들 어찌될까. 한기총은 애국 이상으로 교회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기구다. 칼빈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어도 분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연합체의 지도자들이 목회 하듯 섬기면 그리고 편법이 아닌 진리의 정도를 걸으면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법정 고발이 성경적인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한편 강도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또 다른 강도는 천국에 갔다. 체발 성경이 금한 세상 법정투쟁은 중단하고 내 잘못입니다 하는 정직한 회개만이 자신은 물론 한국교회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1305호] 2012년 1월 14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Jabez Yoo
Hymn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2:1-11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Turns Water into Wine” Pastor
* Hymn 8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희(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진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운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똌 수관준 방글라데세, 김택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내 백성을 위로하라 ”

■ 사 40:1~5

성경은 우리가 싫든 좋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대하 18:7).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듣기 좋은 내용만을 선호하고 듣기 거북한 내용은 배척한다면 바로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계신다
 유대 땅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자자손손대로 소유한 모든 것까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된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성경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가야 향후 13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과, 이후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귀향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약 200여년 뒤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 외에 장래의 상황까지도 바라보시며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십니다.

2.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애 동안,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어려움만 있겠지만 후세를 바라보며 대처하는 지혜 또한 필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2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이사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유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유희에 빠진 선지자나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오류인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 40:3).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가 했던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이사야의 예언 이후 7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 하나님의 그림자는 미래를 예언하신다
 “너희의 노력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함은 오직 700년 뒤에 오실 예수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향후 벌여질 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심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다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만 아직 유대 땅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1차 시련인 200년 뒤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과 700년 뒤의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인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끝부분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영혼의 창문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 모든 것을 접목시켜보려는 노력으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이 세상 인간들의 모습을 풀에 비유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지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지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 40:6).

맺는 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무의미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여 영혼과 접촉해 있는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다운 반응을 우리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므로 주님의 형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승구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준권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신용식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잠 4:18-1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7(삼위일체)...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0(3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학 2: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더 큰 영광...
* 찬 송 Hymn425(21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50:15
찬 송	254(186)
기 도	한상준 집사
성 경	계 2:18-29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두아디라교회"
* 찬 송	270(214)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최현인 권사
성 경	벤전 1:13-21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거룩한 자가 되라"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양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운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회 소식

◆ 모임

1. 상담부 섬김위원 모임 / 11일(주) 2부 예배 후 식당
2. 전도위원회 총회(선교회, 전도회) / 11일(주) 오후3시30분 본당
3. 정기당회 / 14일(수) 수요일예배 후 가이오 실
4. 6월 살롱권사회 월례회는 7월로 연기됩니다.

◆ 알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최용준(한방), 김동준(내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성주진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BA.)
합동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M.Div.)
University of Sheffield, England Ph.D.
합동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임
현재 합동신대학원대학교 구약학교수
화성교회 협동목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680명	313명	207명	1,200명	14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4)

(단위: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4일	헌금 입금	32,647,000	
"	특별예배비		1,566,170
"	찬양운영비		5,820,000
"	교회학교운영비		29,400
"	선교비		451,836
"	행사비		5,190,000
"	경조비		780,000
"	출판비		270,000
"	지원교회		2,000,000
"	소모품비		863,000
"	통신비		922,500
"	차량유지비		614,100
"	복리후생비		544,250
"	수선유지비		3,551,500
"	식당운영비		493,000
"	합 계	32,647,000	23,095,756

🌳 예수님만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자기만 사랑하라 명하시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사랑하라 권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영생을 누릴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이 그대를 버리고 경시한다 해도 주님은 그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대가 괴로워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만 단단히 붙잡고 그대 자신을 주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되신 주님 품안에 거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